

보도해명자료

('17.07.13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'탈원전 대안 LNG 확보대책도 없다' 제하
보도에 대한 입장 ('17.7.13. 중앙일보 1면, 4면)

1. 기사내용

- ☐ 정부의 '탈원전, 탈석탄' 기치에 따라 안정적인 LNG 공급채널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장기적인 확보전략이 수립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
- ☐ 정부는 LNG 수급증에 따른 LNG 도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미국산 LNG 도입을 진행 중이며, 또다른 대안으로 검토 중인 PNG도 현실성이 떨어짐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☐ 정부는 에너지정책방향에 맞추어 LNG 수요증가에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, 금년말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통해 안정적인 가스수급을 위한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
 - *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'91년이후 격년으로 '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'을 수립하면서 LNG에 대한 장기도입 전략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음
 -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확정될 전력믹스 변화에 따른 LNG 수요에 맞추어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마련

- ☐ LNG분야 주요 전문지(Wood Mackenzie 등)에서는 현재 '20년 중후반까지 다량의 확보가능한 물량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, 대규모 도입물량이 종료되는 '20년 중반까지 도입을 위한 시간*을 고려할 때 향후 LNG 수급대응은 가능한 상황

* 일반적으로 LNG 장기계약은 LNG프로젝트 건설기간 등을 고려하여 도입예정 5년전에 체결(예 : '25년 도입물량은 '19~'20년경 계약)

- ☐ 미국산 LNG 가격경쟁력은 유가에 따라 변동되며, 향후 국내 수급상황과 가격 등을 고려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하겠음

※ 관련 문의 : 가스산업과 황병소 과장(044-203-5230)



Ministry of Trade,
Industry and Energy